


 **irct**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Council for Torture Victims  
광주트라우마센터는 IRCT 회원단체입니다


2017  
GWANGJU  
ASIA  
FORUM  
광주아시아포럼


제5회


#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ate Violence  
and Trauma

주관  **트라우마** 광주트라우마센터  
Gwangju Trauma Center

후원  사란뵤민 416 가족협의회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익학연구소  
광주대기상계유센터 '숨'

*A*

# 녹슨 팔과 가려운 손가락;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문화적 시각

호세 에르나니 S. 다비드 (Jose Hernani S. David, 필리핀)

인하대 언론정보학

(본 논문의 저작권은 호세 에르나니 S. 다비드에 있습니다 © 2017)

현 필리핀 대통령인 로드리고 로아 두테르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점은 그가 게임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새로운 제안으로 물론 본인을 포장하여 적어도 전임자보다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두테르테와 그의 조력자들은 지조와 예의범절을 완전히 무시한 반면, 완벽한 전문성으로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환경을 읽어 내어서 상당히 쉽게 불만을 조성하고 승리를 견인하였다.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나는 현 필리핀 정부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논의의 결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위협에 대해 기록 상 먼저 말해 둔다. 나는 전 대통령이 점지한 후임자에게 투표하지 않기로 결심했었고 두테르테의 계획에 진보적인 요소와 그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그 어떤 현대사회에서 해결한 적이 없는, 유혈정책을 고려해 본 결과 그에게도 표를 줄 수 없었다. 더 이상 말 할 필요도 없이, 내가 투표한 후보는 물론 이기지도 않았으며 2위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나는 전 정부과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적어도 이데올로기적인 원칙에 관해서는 현정부 또는 전정부 그리고 오늘날의 야당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필리핀에서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초법적 처형의 문제 혹은 내가 꾀의상 부르는 EJKP (extrajudicial killing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의 초법

적인 사형)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이를 용납하는 정책을 당장 폐기하는 것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을 포함해서 책임자들이 모두 시민들이 결정하는 처벌을 받기를 선호하지만 두테르테 정권이 실행해 온 진보적인 이니셔티브로 필리핀이 혜택을 받기도 선호한다. 나는 둘 다 모래 위에 선을 그은 것 처럼 실행가능한 대안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것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EJKP의 범죄를 대중의 인기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야당은 필리핀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폭력이 최대로 가해졌기 때문에 권력 행사를 주장할 도덕적 명분을 잃었다면서 자위하고 있다.

필리핀의 역사 학자인 빈센트 라파엘 (Vicente Rafael)은 프랑스의 철학자 푸코가 서구의 감옥제도에 대해 쓴 기념비적인 저서 “감사와 처벌; 감옥의 역사”에서 주장한 전제를 실천한 유럽의 그것과 반대로 행해지고 있는 최근 범죄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라파엘은 생체권력 (biopower)의 반대 개념으로 네크로권력 (necropower)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였다. 푸코에 따르면 생체권력이란 폭도, 반대파, 악인 중 순종적인 자기 편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네크로권력으로는 이에 따라 개인의 변화(reformation)의 결과로 이어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생성된 조건들이 폐기된다. 문제가 있는 개인은 그의 생존을 앗아감으로써, 가장 저렴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소모된다.

나는 또 다른 푸코의 족보적 개념을 심각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어떻게 묵인, 친절, 저항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엘리트 보다는 아닌 포퓰리스트들을 선호하여 개발이라는 명목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가해 참담한 결과가 예상되는 정책을 약속하는 지도자에게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공약 내에 이러한 모순 또는 흑자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이전에 제국주의적 미국을 대신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권력인 중국과 마르크스 이후 시대의 엘리트를 대신하여 마르크스 전의 족벌체제를 이끌어 온 마르크스 가족을 포함한 구시대의 엘리트가 부상하고 있다는 반증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들릴수 있고 두테르테 정권 옹호자들은 대통령의 임기6년 중 1년 만이 지났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테르테의 외교 경제 정책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8000여 개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그야말로 비극적으로 어설픈 것이다.



## 필리핀의 문제

한국은 논의의 출발점으로 흥미로운 나라이다. 왜냐하면 근대 역사에서 후자를 병행하며 몇몇 특정 시점들이 서로 엉켜 있기 때문이다. 20 세기의 초기에 양국은 식민지를 경험하였으며 한국은 필리핀의 강점자인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 미국은 식민지가 된 나라와 식민지가 될 국가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유럽의 제국주의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나의 조상인 필리핀인들에게 어느 정도는 교육, 언론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제공하면서 평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일본이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로 확장하기로 했을 때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유럽의 식민지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리핀은 미국이 다시 필리핀을 식민화하는 것을 위해 싸웠다.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한국이 광복을 맞았지만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 필리핀을 덮었던 전쟁이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이후 양국은 미국의 지지를 받는 군사독재를 경험하였다. 차이는 필리핀이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를 눈 앞에 두고 독재 하에서 고통을 끝내는 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고 그와는 반대로 한국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으며 선진국이 문턱에 와 있다.

지리적인 조건 즉 필리핀이 7000 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20 이상의 언어와 방언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필리핀은 이미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필리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유럽의 영향을 받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권력들의 협상에 의해 정의되었다. 필리핀은 아시아 내에서 처음으로 유럽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한 나라인데 사실 스페인의 독특한 서쪽 나라의 도착에 때문에 19세기 까지 이웃 국가들과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더욱 중요하게도 스페인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일찍 도착에 이슬람교의 영향을 제어 할 수 있었으며, 기독교를 전파하고 교육을 포함한 제도들을 도입하였는 바 이는 다른 어떤 식민세력들이 아시아 어떤 곳에 도입한 것보다 상당히 방대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서구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나라가 되었다. 사실, 식민지 이전이 문화에 대해 논할 때, 필리핀은 인도 말레이 군도까지 포함하여 필리핀 밖의 동양 문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를 관찰자적 시점에 보자

면, 지성과 감성의 서구적인 형태에 관한 다른 아시아인들이 필리핀인들을 따라 올 수 없다 서구 지향적인 예외적 정신세계는 (인종주의와 같이) 위험하거나 비생산적일 수 있었으나 (개이주의와 같이)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는 유용한 것이었다.

## 동시대의 고충

독재의 비극적인 실험 이후의 필리핀의 쇠퇴는 불필요한 고통을 수반한 거대한 트라우마를 남겼다. 다른 아시아의 중심부와 마찬가지로 인권유린, 관료부패 그리고 노동착취가 우리를 할퀴고 갔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남미의 바나나 공화국들과 비슷하게 우리는 결국 더 가난하고 더 억압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신식민지의 기지로써의 국가 위상은 다국적 기업, 반개혁적 족벌재벌, 종교광신도 등의 철용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유용한 요소들의 융합을 목도하게 된다. 필리핀의 대도시적인 취향과, 유연한 자세 그리고 보상추구의 성향은 자국 노동의 해외취업에 완벽하였다.

그러나 독재정권이 악화의 길을 계속하는 동안의 임시방편이었던 것이 영국적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자국 고용을 위한 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런 인력의 해외 수출이 도움이 되었다고도 할 수는 있으나 경제가 성장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도 필리핀 국민들의 민생은 계속하여 악화일로였다. 왜냐하면, 소득의 원천이 최첨단 기기들도 공급시 그것을 조정할 인력이었고 비용을 줄이고 부업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산업 또는 농업의 수출품과는 달리 되 팔거나 되수출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필리핀의 엘리트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착취와 보수의 천국이었다. 해외송금액으로 구성된 점진적인 소득의 증가가 다른 이들이 보지 못 하는 미래를 적어도 보장해 주고 있었다. 충분히 권력을 가진 관료사회는 이에 편승하여 전횡을 서슴치 않았다. 소득을 생산하는 자들이 배신감을 느껴도 계속해서 고국으로 송금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자금이 끊기면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들 중 이혼이 가능하지 않은 필리핀에서 가톨릭 교회는 나쁜

대로 모금을 통해서 반독재 운동에 지원하고 그들의 퇴행적 독설의 입장에서 너무 진보적이라고 생각되는 계획들을 제지할 수 있었다. 생식기 건강법을 통과하려는 여성단체들의 투쟁은 고난의 연속이다. 교회는 예상한 바 대로, 그 법안의 통과, 제지 그리고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동력을 다 동원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족의 수를 늘려 대가족을 유지하면 부모들은 해외 열악한 노동시장으로의 인력수출을 통한 해외송금액 소득의 기회가 증가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일하는 한 명의 노동력이 전체 대가족을 먹여살릴 수 있으니 아이가 많을 수록 더 이익이다.

이런 큰 그림에서 바라보면, 두테르테가 수백만의 필리핀 국민들이 마약 중독이라는 주장은 자연스러운 주장이다. 그는 EJKP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 물론 그의 주장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테르테가 조장한 이 화약고 같은 상황은 그가 권력을 잡기 전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되어 있었다. 사람들 내에 쌓여 있던 촉발요소들은 이미 SNS에 의해 일촉즉발 상태로 발전해 있었으며 이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 강화되었다.

### Vague Stirrings

필리핀 대중 문화를 잘 모르는 일반적 관찰자들은 필리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느낄 수 없었지만 내가 이상한 표현을 쓰자면 이들은 페이스북 담벼락에 감정의 배설하는 방법들을 찾았다. 하이안 태풍이 레이터(Leyte)섬을 휩쓸고 간 후 아키노 전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인 마르 록사스(Mar Roxas)는 지역 야당출신 시장이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구제활동을 허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디오 클립이 돌아다녔다. 또 다른 뉴스는 민다나오 시장이 전혀 환영받지 못 하는 상황에서 구제 물품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내보냈다. 두 사람의 이렇게 다른 태도는 금새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페이스북의 저장 기능에 힘입어 네티즌들의 기억에 오래 각인이 되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재난의 피해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보여 모금, 조직 등 다른 여러가지 구제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하였다. 6개월 후, 아키노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사건이 터졌다. 알려진 대로 PNoy인 그는 그 어머니의 거만한 태도는 거의 담지는 않았으나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정당화할 수도 없었다.

아키노 대통령에 대한 거만함이 네티즌들의 불만을 고조시킨 전환점은 2014년이었다. 국민 예술인으로 노라 아노르 (Nora Aunor)를 문화계의 강력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며 대변인이 심술 사나운 결정의 변명을 했기 때문이다. 불과 며칠 뒤, “노라를 국민 예술인으로”이라는 페이지가 페이스북 북에 도배되기 시작했으며 독립적인 몇몇 기관들, 그 중 몇몇은 정부기관이었으며, 아노르의 일생 업적에 대해 칭송하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여러 대중문화의 인물들과 그들의 언설등이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고 특히, 야당 지도자가 2013년 태풍 하이얀의 피해자들을 구하는 모습이 자주 그려지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하였다.

따라서 필리핀 대선은 여러가지 현상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팬덤을 형성하기도 하고 도덕성에 대한 평가로 이어 지면서 결국 SNS를 가장 잘 활용한 인물이 당선이 되었다

선거에 대해 강도 높은 연구가 진행되어 지금 현재로는 몇몇의 임시 결론이 도출되었다. 두테르테 팀은 몇 년 전부터 어찌면 오바마의 선거운동에서 몇 페이지를 따라서 SNS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준비했다. 그들이 보여준 타이밍은 절묘하리만큼 적확했다. 두테르테가 후보로서 부상할 당시 여당인 자유당 (Liberal Party)은 속셈을 들어내며 다른 후보들을 파괴할 계획을 실행하였다. 두테르테의 차례가 되자, 후보는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만들어 초법적 사형을 인정하고, 관심없는 듯 웃을 입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마르코스를 지지하고, 교황을 모독하며, 서구의 대사들도 모욕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고 떠들었다. 이는 그가 과거 필리핀에서 가장 겸허하고 안정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온 성공한 시장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자유당의 공격을 기득권의 위선이라고 되받아쳤다. 이는 아마도 선거 캠페인의 애초에 계획된 의도였을 것이다.

두테르테의 추종자들과 자유당(Liberty Party)과의 싸움은 아마도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어느 한 편을 들게 하여 혐오기반의 근본주의의 설전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 페이스북의 가입자들은 선거 다음날인 5월10일을 “우정의 날”이라고 선포하며 치유에 24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와는 반대로, 부통령 선거는 자유당의 후보와 마르코스의 아들 간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의 승부였으나 모범적인 의견교환과 때로는 유머까지도 서로 교환하였다. 마르코스의 지지자들이 선거부정을 주장했을 때, 몇 몇의 통계 전문가들

이 앞서서 주의 깊은 방법론 적인 설명을 더 완전한 데이터세트로 보여주면서 주장의 근거가 확률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른 재밌는 것은 둘의 패로디가 트위터에 업로드 되고 이를 통해 둘 중 어느 후보를 선호하는지 선택하게 하였는데 이 패로디의 작가는 두테르테를 선호하고 자주 마르코스를 모독에 대해 은근히 메시지를 첨가했다.

## EJKP의 시작

대통령으로서 정식으로 임명도 되기 전에 두테르트는 소위 말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실행하였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제안했던 몇몇이 명분을 살펴볼 수 있으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다. 그 명분은 심리적인 이유였고 모든 심리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서술 프레임으로 묶여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아들인 바스테는 불법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이 되어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들 바스테의 고통을 지켜 본 대통령은 가차없이 불법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자 (공급책 제조자 그리고 중독자 등)들과의 싸움을 시작하여 이 문제가 지구상에서 적어도 그가 시장인 다바오(Davao)시에서 사라지게 하고 지금은 그가 대통령인 필리핀에서 사라지게 할 거라는 서술이다.

대부분의 근원적 서술처럼 전설적인 측면이 이 이야기에도 있으며 이 정도의 이야기이면 두테르테의 반마약 캠페인은 십자군의 기운이 돈다. 단지 서술이 아니라 신성한 전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추종자들을 그 올바름에 대해 설득할 수만 있고 일정한 문화적 불안을 조성한다면 현대사회에서의 전설은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 히틀러의 인종차별이나 로널드 레이건의 큰정부 위기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의 쇠퇴 등의 그 예이다.

이러한 예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근원적인 서술은 지도자의 추종자들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유용하나 이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 전설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등 문화적인 저항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의 경우 우리는 몇몇의 고층에 직면하고 있고 그 중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작으나 분명히 잘 나와 있는 반대의 목소리에 직면한 두테르테 정권과 관련이 있는 세가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 미해결 살해 사건은 최근 기록을 보면 3000건 이상으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초법적 처형이고 국가의 인가를 받은 반면 두테르테 정권은 이를 부인하고 “조사중”이라고만 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살인문제에서 인권문제는 간과되고 살해당한 국민들은 그 어떤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가에 의해 살해 되었기에 인권이 유린되고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이다. 정부의 사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범죄가 있었을 때의 권리와 일정 진전된 상황에서만 인권을 적용하는 것만 포함하는 등 인권이 재정의 되었으며,

셋째, 이러한 초법적인 살해를 통해 일부 반대파에서는 무장한 반군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오랜 동맹이 전통을 지닌 서구와의 우방관계를 멀리하고 친중국 친러시아 정책을 펴서 궁극적으로는 반대 없는 독재정권을 세우겠다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것은 억압의 독재로 돌아가는 것이며 예전에 마르크스 정권이 몰락에 의해 불안에 떠는 전통 공산당과 이슬람 강성주의자 족벌체제의 재벌가들과의 연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나의 준 아마추어적인 소셜 미디어의 관찰과 친정부 또는 친야당의 민감한 인물들과의 대화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 문제에 대해서는 사형의 합법성 그리고 인권의 요소 등을 포함해 야당이 좀 더 견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처형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겠지만 두테르테는 선거운동기간과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마약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록으로 남겼다. 이런 엄청난 발언에는 자신의 아들인 바스테와 같이 일반 중독자들도 마약상이나 관련자들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에 관해서는 정부 옹호자들은 광신도들이거나 이성적이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망상 장애를 겪고 있는 듯 하다. 이는 그들이 불필요하게 인권을 복잡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된다.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 적용이 가능하게끔 가장 단순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 두 문제가 보여주는 것은 두테르테와 그의 추종자들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고 현재의 필리핀의 정책을 평가하려는 시도 자체를 불가하게 만들며 또한 두테르테가 오바마 전 대통령을 몰아 세운 것을 본 이상직접 맞닥들이기도 어렵다. 우리는 대통령의 욕설과 외설로 표현된 언사를 매우 좋아하며 그의 추종자들에게서도 그대로 볼 수 있으며 마치 그들이 자신보다 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비논리적일 수 있는 인증을 받은

것 같이 행동한다.

세번째 문제는 정부와 야당의 차이가 역사적인 배경에서 온다. 야당이 두테르테가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의 공포를 떠올리는 반면 두테르테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최고가 아마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기본권과 때때로 목숨마저 앗아가는 데 최고의 실력을 의미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 두테르테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렇게 말 한 적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일로카노어를 사용하는 북구지역의 지지를 의식해서인지도 모른다. 반마르코스 운동가였던 본인의 어머니의 역사를 통해 그는 한 때 번영의 길을 걸었던 한 국가가 독재로 인해 망가지는 경우가 아시아에서 필리핀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조차도 수하르토 정권 하에서 착취가 심각했지만 그 정권 하에서 아시아의 개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 개발 문제

필리핀의 개발작업에 대한 설명은 나라가 탐욕스럽고 자기기만의 독재자의 통치하에 있었다고만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이나, 이 문제는 또 다른 회의에서 다룰 문제이다. 두테르테 추종자들과 그의 비판자들의 화해가 불가능한 진정한 문제는 계엄령 선포 전과 중간에 가장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르코스에 대한 반대를 하였던 한 조직에서 기인한다. 필리핀 좌파는 공산당과 그것의 합법적인 조직인 전국민주연합(\_\_\_\_\_하에 통합되어 있었다. 당이 마르코스를 몰아낸 민초 봉기 세력으로부터 멀어지자 지도부에 대한 내부 비판의 강도가 높아져 창립 지도부를 지지하는 측(\_\_\_\_)와 이를 거부하는 측(\_\_\_\_)으로 분열되었다.

양측은 당이 지지하는 후보와 마르코스 이후의 선거 절차에 참여하는 인재들도 있었다. 그러나 두테르테의 정권 이전에는 사민당과 연대하여 승리하는 후보 즉 베니노 아키노 세와 동일시 하였다. 매우 극적인 정치적 전환에서 그는 그 전 선거에서 두테르테와 손 잡고 아키노와 그의 당의 비인간적인 정책을 책망하며 승리했다. 여러면에서 이것은 상호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평화협정을 통해 현 정부의 지지를 받지만 그는 두테르테가 대통령으로는 부적합하며 부통령인 레니 로브레도가 차라리 그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로브레도는 두테르테를 지지하고 있으며 두테르테를 대신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두테르테 지지에 관한 중간은 없다. 디공파(←또는 반디공(←이건 간에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은 두테르테를 비판하면 사람들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때때로는 친구들에게 심할 정도로 비난받고 캠프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내 페이스북에서는 내가 두테르테 지지자이기도 하고 아키노 자유당의 노랭이이기도 하다. 초법적인 살해에 관해서는 아무도 대통령이 그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주장은 할 수 없으며 그런 살해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의 다른 정책에 관심을 돌린다. 대통령을 받아 들여 모든 살해가 정당하다고 믿거나 그러나 살해를 비난하면 자동적으로 현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비판적인 사고를 견지하고 분석적 사고를 지속해야 하는 좌파들에게는 아이러리이지만, 이것이 필리핀 정치의 현실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제자

조엘 데이비드는 인천 인하대학교의 문화연구 교수이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뉴욕대학교에서 영화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필리핀 영화에 관한 몇권의 저서가 있으며 최근 공개된 블로그에서 Amateurish라는 글을 연재하기도 한다. (URL <https://amateurish.com>). 2016년에 영화비평으로 인생 최대의 인정을 받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필리핀 예술과 국제영화제에서 장학금을 수령하였다. 그는 필리핀영화대학의 창립이사이며 여러 필리핀 영화비평관련 조직에서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제5회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ate Violence and Trauma

비매품

9 3 0 6 0



9 791195 072293

ISBN 979-11-950722-9-3

